

정체·전문성 확보 지향점 뚜렷해야

불교NGO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활동영역 확대도 불교NGO발전의 중요요소로 꼽힌다. 사진은 불교재가연대가 지난해 11월 개신교, 천주교와 함께 한 '종교NGO네트워크' 발족식 모습.

법륜스님의 막사이사이상 수상 이후 불교 NGO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관심에도 불구하고 NGO들의 활동 기반은 취약하기만 하다. 재정·정체성·전문성·접근방식 등이 NGO 활동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 불교 NGO의 현황과 문제점

시대적 상황에 따라 종교 NGO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교 NGO들 활동은 그리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불교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정교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수십여개의 NGO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NGO 활동의 문제점 중 먼저 재정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불교 NGO들이 월 500~1000만원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있다.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회보 발행 등 경성비에 쓰고 나면 기존 사업 외에 새롭게 품종되는 사업을 하려 해도 임무를 내지 못한다.

이정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아직 사회적 회향을 하는 문화가 덜 정착되어있다"며 "이는 개인적 기복신앙에 치중하는 교계 내부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NGO 정체성 부분이다. 즉 NGO들이 출범할 당시부터 이념적 지향성을 뚜렷하게 세우고 차별화된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불교아카데미 연구실장은 "현 교계 NGO 중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이 내세우고 활동하는

단체는 드물다"며 "이 때문에 NGO 생명력이 짧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셋째 NGO 활동가들 전문성 문제다. 한 NGO 활동가는 "내부에서도 활동가들의 전문성 부분에 대해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고 이를 고민중에 있다"고 밝힌다. 실제 한 불교 NGO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통해 활동가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넷째 NGO들의 접근 방식 부분이다. 정성운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불교계 NGO들은 아직 축적된 노하우가 부족하다"며 "일반 NGO들의 축적된 노하우에 불교적 사상을 담아 일반 불자들에게 다

등 부대사업 실시, 후원자 발굴 프로그램 개발 등도 재정 확보 방안으로 거론된다.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NGO가 다양화되고 세분화 될수록 정체성과 자생력이 강화된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분야가 전문화될수록 활동목적이 뚜렷해지고 그에 따라 불자들의 동참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활동가 재교육을 통한 자생력 강화와 일반 NGO들과의 연대 사업을 통한 전문성 습득도 정체성을 확보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활동가들 전문성 문제에서는 교계 NGO들이 준비하고 있는 '불교사회단체 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주목받는다. 여기에서는 교계 NGO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습득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NGO에 뛰어 들려는 청년 불자들을 교육시키고 기존 활동가들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 구축도 고려할만 하다.

접근 방식 부분에서는 불교환경연대의 '산행'을 들 수 있다. 회원 또는 비회원을 사신행 생태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NGO와 개인간의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다.

또 재가연대에서 실시하는 '불교아카데미'나 '21세기 사찰모형 탐구', '인드라망'에서 실시하는 '화엄광장'과 같이 교육과 홍보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다양

재가연대·대불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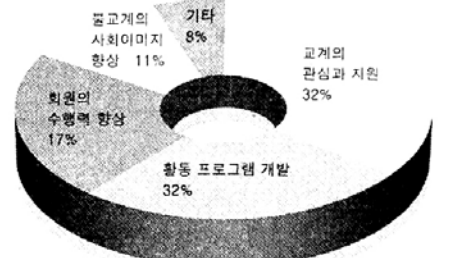
신행과 진로 두 분야에 대한 대학생 불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불교 활동은 다양하게 하고 싶다'로 요약된다. 생활윤리와 관련된 해서는 스님들의 일반적 사생활은 보장하되,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생활동
현재의 불교학생회 활동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64.8%가 '만족한다'고 응답.

잡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 생활윤리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승가에 대해 현실적으로 허용해야 할 부분은 허용하지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음주·고급유흥장 출입·육식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출가자의 경우 어느 정도 허용해

대불련 활성화를 위한 과제



포교·친목·사회활동에 불만족

대학생 신행패턴 변화 불교계 수용 못해

2000년 조사(64.3%)와 비교해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00년 조사 때 '교리 및 경전공부' '종교간 연합활동' 부족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냈던 것과 비교해, 이번 조사에서는 '포교활동 부족' (19.1%) '친목·사회활동 부족' (16.1%) '수행부족' (14.5%)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만족을 나타냈다. 이는 대학생 불자들의 관심이 다양해지면서 신행패턴이 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충족시킬 프로그램은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적으로 사찰에 다닌다'는 응답은 2000년 40.5%에서 47.5%로 늘어났으며, '교계 활동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참석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57.8%만이 '참가하겠다'고 응답. 2000년 64.6%보다 다소 감소했다.

'대불련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교계의 관심과 지원' (32%), '불교계의 사회 이미지 향상' (11%) 외에, '활동프로그램 개발' (32%), '회원의 수행력 향상' (17%) 등을

아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대학생 불자들은 스키(61.1%), 육식(60.7%), 골프(49.8%), 주식 등 재테크(34.7%), 음주(29%), 화투/포커(12.4%), 고급유흥장출입(5.7%) 순으로 '적극 허용' 또는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재가자의 경우 이 7가지 항목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고급유흥장 출입(35.2%), 화투/포커 60%를 제외하고는 80% 이상이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대학생 불자들은

'다'고 응답했다. 2000년 조사 때의 53.1%와 비교해 7.5%나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부정적인 응답이 늘고 있는 이유는 불교계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직장이라는 인식을 갖기에는 안정성이나 전문성 등이 일반 직장과 비교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불교계에서 종사하고 싶은 분야로는 '언론 출판' 분야 (19.5%)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GO' (17.2%), '어린이 청소년' (12.6%), '학술·연구' (11.5%), '사찰/종무기관' (11.5%) 순이었다. 특히 '언론 출판'은 2000년 조사 때 거의 응답자가 없었던 분야로, 몇 년 새 불교 언론과 출판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어린이 청소년' 분야는 2000년과 비교해 선호도가 절반으로 줄었고, '신도 활동' 분야의 경우는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이 두 분야의 젊은 인력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승가 음주·육식 어느정도 허용을"

졸업후 불교계 취직하고 싶지 않다 60%

출가자들의 식생활과 여가생활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윤리적 수준에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급유흥장 출입, 화투/포커와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윤리적 수준을 요구했다.

● 진로
'졸업 후 교계에 종사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60.6%가 '종사하고 싶지 않

다'고 응답했다. 2000년 조사 때 거의 응답자가 없었던 분야로, 몇 년 새 불교 언론과 출판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어린이 청소년' 분야는 2000년과 비교해 선호도가 절반으로 줄었고, '신도 활동' 분야의 경우는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이 두 분야의 젊은 인력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후원프로그램 개발 등 재원대책 시급

일반 NGO와 연대·재교육시스템 필요

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여기에 활동가들의 보수 문제,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의 NGO들에 대한 인식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 활성화 방안

NGO 활성화 방안 중 재정 부분에서는 재가연대가 실시하고 있는 CMS(Cash Management Service) 제도가 눈에 띈다. 회원들로부터의 약정된 회비를 매월 자동이체 형식으로 후원받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고정된 수입원으로 인해 계획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나 불교환경연대 등도 CMS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정부나 각 종단 총무원에서 실시하는 프로젝트 사업권 획득, 교육 사업

한 프로그램 확보가 시급하다.

이 외에 정토회나 재가연대의 인도 및 아프리카니스탄 지원 사업, 인드라망의 생협, 한국불교환경연대원의 스키기 제로 운동 등도 활동의 외연을 확장시켜주는 매개체로 거론되고, 재가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 불교시민사회단체 및 시민사회교육 지원법 제정'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 모범사례

정토회에서는 논의점이 발생하면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토론한다. 정토회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목적의식을 공유한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교육도 철저이 이뤄지고 있고, 회원관리 및 확보도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대선후보들의 불교공약

- 불자님은 12월 대통령선거와 관련 후보들의 대(對)불교계 공약에 관심을 갖고 있으십니까?
① 관심 있다 ② 관심 없다
- 후보들의 대(對)불교계 공약이 불자들의 투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① 많이 준다 ② 조금 준다 ③ 영향 주지 않는다.

설문 참여: 10월 10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무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91호 A판 4면에 실립니다.

깨보받습니다

기사화면이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제보 가운데 불교발견과 기사특색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02)722-4162. buddhanews.com

인생을 바꾸는 아바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오!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설문지만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오

해산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av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선천개도5000년·후천법립19년 개도법립 5019년

자유도덕종교·평화도덕종교·정의도덕종교

사단법인 미륵종교협의회

미륵종교협의회는 체미행도(替彌行道)이다. 미륵을 대신하여 도를 행하는 것이고, 정기화인 대천행도(正己化人 代天行道)이다. 중앙무기 오십토운(中央戊己 五十土運)으로 미륵삼불세존께서 탄생하시어 하늘을 대신하여 도를 실천한다는 뜻이다. 즉, 선후중천(先後中天) 오중운도(午中運度)로 유불선(儒佛仙) 삼종합일(三宗合一)의 삼대원리(三大原理)를 천칙(天則)으로 삼아 삼일의성사상(三一義誠思想)으로 억조창생(億兆蒼生)을 구원하여 도덕용화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미륵종교협의회라고 하는 것이다.

覺醒詩

말로써 得道를 하면 생각에 그치고
글로써 成道를 하면 아는 곳에 끝나니,
말로써 得道의 길을 자랑하여 유희하지 말고
慚愧之心으로 修身躬行 할 것이며,
글로써 成道의 길을 보이려 애쓰지 말고
羞惡之心으로 實踐躬行 할지니라.

法門으로서 大通을 하면 자신을 속이는 곳에 그치고
衆生으로서 大覺을 하면 생각에 속는 곳에 끝나니,
說教로서 神通의 길을 자랑하여 죄짓지 말고
辭讓之心으로 良心躬行 할 것이며,
衆生으로서 悟道의 길을 보이려 궁상떨지 말고
是非之心으로 眞實躬行 할지니라.

자신을 속이는 것은 하늘에 죄짓는 곳에 그치고
생각에 속는 자는 일평생 실패하는 곳에 끝나니,
어리석은 마음에 떨어지지 말고
우매한 언행에 빠지지 말아라.
중생은 물갈이 흐르는 것이니
서로 가지려고 싸우지 말고,
진리는 해가 뜨듯이 뜨고 도는 것이니
네 것 내 것 시비하지 말아라.
실력을 갖추면 물에 고기가 생기듯이
중생의 인연이 생기고,
깨달으면 태양이 뜨듯이
지혜의 등불이 세상을 밝게 하리라.

聖運이 다한 종교는 반드시 不覺에 그치고
삿된 믿음은 반드시 不成에 끝나니,
깨닫지 못하면 누구나 지옥에 떨어지고
성취가 안되면 누구나 괴로워지는 것이니
甘言利說의 종교에 물들지 말고
惑世誑民의 믿음에 오여되지 말아라.

彌勒宗教協議會 教主 道佛道主 合掌

제5회 미륵사상과 도덕사회 구현 학술세미나

일시
2002년 10월 21일 월요일 오후 1시

장소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프레스센터)

논문주제발표
발제 총론-윤이홍(서울대 교수)
미륵사상과 정치-양은홍(원광대 교수)
미륵사상과 경제-김형선(한신대 교수)
미륵사상과 문화예술-이매주(서울대 교수)
미륵사상과 윤리-신수현(미륵종교협의회 연구위원)

논평
김중서(서울대 교수)
서영대(인하대 교수)
배명기(충의대 교수)

주최
사단법인 미륵종교협의회

주관
미륵대도 금강문화총

후원
문화관광부·(재)대도문화재단·관성정보회

문의처
사무국: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산84-3
TEL: 032-831-6803 FAX: 032-831-6967